

독립정신 깃든 사찰, 지금은...

항일 운동 중심... 韓불교 전통 수호 앞장

(재)선학원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질곡의 시대사와 함께 한 민족불교 도량이다. 경술국치 이후 빠르게 일제 식민지화 된 한반도에서 조선 임제종운동에서부터 선학원은 태동한다.



강원 백담사에 세워진 만해 스님 흉상.

1910년 10월 6일 굴욕적인 한일불교협약인 '조동종 맹약'이 조선의 원종과 일본의 조동종 승려 사이에서 체결되고, 다음 달인 11월 6일 이 맹약에 반대하며 임제종 운동이 전개됐다. 맹약의 핵심은 당시 한국 불교계의 대표기관인 원종(圓宗)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일본 조동종의 고문을 위촉하고, 조동종의 한국 표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1912년 서울 대사동의 '조선임제종 중앙표교당' 간판은 철거됐다.

그러나 임제종 운동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키고자 했던 스님들의 노력은 선학원 설립으로 이어졌다. 남전(1868~1936)·도봉(1873~1949)·석두(1882~1954)스님이 설립자금을 모았고, 임제종운동에 참여했던 만해·용성·만공스님 등은 설립이념을 민족불교의 확립과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뒀다.

서울 종로 안국동 40번지에 1921년 서울 간동포교당(兼洞布教堂) 보살계 계단에서 선학원 설립의 서막을 열었고, 그해 8월 10일 기공을 거쳐 4개월 뒤인 11월 30일 준공됐다. 창립 직후인 1922년 3월에는 전국 수좌들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선우공제회가 창립됐다. 그러나 일제 침탈로 한국 불교의 전통인 선 수행의 위상이 저하됐고 당시 31본산 주지들은 선원에 대한 중요성

1921년 법당 건립하고 활동 일제의 억압에 침체 겪다가 1931년 적음 스님이 중흥해 만해 스님의 주된 활동 도량 100주년 앞두고 기념관 불사 근대불교 조형 공간으로 장엄

을 인식하지 못했다. 결국 재정상 어려움을 겪던 선학원은 1926년 연고권을 가진 범어사 표교당으로 기능이 용도 변경된다.

1931년 들어 적음 스님이 나서서 선 수행 대중화에 나서며 선학원은 중흥된다. 적음 스님은 남해선우회선학원을 설립했으며, 불교 잡지인 <선원>을 창간했다. 1934년에는 법인 인가를 받아 (재)조선불교선리참구원으로 개편하게 된다.

선학원은 특히 만해 스님의 독립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선학원 정신에

뿌리를 둔 임제종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만해 스님은 운동 참여 이유로 경성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기도 했다.

또한 1926년에 만해 스님은 6.10만세운동으로 선학원 근처에 잠복해 있던 일본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인산일(因山日,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항일독립 운동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학생 수는 서울에서 210여 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같이 민족 불교 운동의 중심 도량인 선학원은 새로운 도야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새롭게 건립 중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이다. 기념관 건립 불사는 순항 중이다. 선학원은 2014년 11월 20일 중앙선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고, 2015년 12월 31일 준공, 2016년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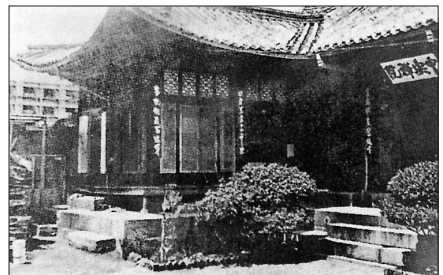
기념관은 814.1㎡(246.27평)의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신축된다. △지상 1층 한국근대사 및 근대불교전시관 △지상 2층 참선 수행 및 명상, 상담치유를 위한 힐링센터 △지하 1층 식당 △지하 2층 전통문화체험관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문화교실 △지하 3층 교양, 문화 강좌를 위한 소공연장, 시니어 및 주니어 센터를 운영할 소·대강당 △지하 4층 기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학원은 "선학원이 태동한 자리에 세워지는 기념관은 선학원 설립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재단 행정·교육·복지의 중심이자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p79@hyunbul.com



선학원이 중앙선원 자리에 건립불사 중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조감도.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학원 중앙선원의 첫 모습. 1921년 선지식들에 의해 세워졌다.



1931년 열린 선학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수좌대회.



2009년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태극기.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이 비장했을 것으로 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발견 당시 모습. 태극기와 함께 <독립신문> 등 사적류가 나왔다.



진관사 칠성각. 이곳에서 백초월 스님의 태극기 등이 발견됐다.

태극기에 담긴 정신, 도저히야라

서울 진관사

2009년 5월 26일, 진관사 칠성각(서울시 문화재 제33호) 해체복원 불사 현장을 지휘하던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은 불단과 기둥사이 벽면에서 흰 한지 문치를 발견했다. 범상치 않은 발견에 스님은 주지 계호 스님에게 사실을 알렸다.

물건을 대장방으로 옮긴 후 조심스레 펼쳐 본 주지스님과 대장스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 속에 숨겨 있던 태극기와 <신대한> 3점, <독립신문> 2종 4점, <조선독립신문> 5점, <자유신종보> 3점, 경교문 1점이다.

이 같은 근대 유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충분했다. 수록재와 사찰음식으로만 알려졌던 진관사가 독립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태극기는 세로무늬의 태극과 4괘 덧붙임식 태극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덧붙임식 태극은 1900년대를 전후해 태극기 제작 양식이 규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방식이다. 당시 연구를 담당하던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연구소 김용달 연구위원은 "제작 방식으로 볼 때,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크기로 볼 때 3·1운동 등 시위보다는 단체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극기와 보관됐던 사료 가운데에는 단재 신채호가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자유신종보> 등 국내에서는 처음 발굴됐다.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을 비장(秘藏)한 인물로는 백초월 스님이 지목됐다. 백초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생전 모습.

2009년 칠성각서 보수 중 태극기·독립신문 등 발견 김광식 교수의 조사·연구로 백초월 스님 행적 밝혀져 수록재 등 전통문화 계승

월 스님과 진관사의 연관성을 찾은 것은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다. 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백초월-독립운동가 초월 스님의 불꽃같은 삶>을 통해 이를 잘 기술했다. 김 교수는 법해 스님과 함께 태고종 범륜사 금봉 스님에게서 초월 스님에 대한 회고를 듣는다. 1930년대 진관사에서 초월 스님에게 수학한 금봉 스님은 "초월 스님이 진관사 도량 내의 전각 중 가장 으스스한 곳에 숨겨놓았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1876년 2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백초월 스님은 14세 때인 1890년 지리산 영원사로 출가했다. 20대 후반 강백을 역임할 정도로 실력자였던 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불교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다.

1920년 일본의 독립청원 활동을 이유로 일제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상한 몸을 추스르며 표교당에서 일심(一心)사상을 강연했다. 스님은 이 사상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1929년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군용 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는 글귀를 쓰는 사건을 주도했다가 다시 일제에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6월 29일 청주교도소에서 끝내 순국했다.

김광식 교수는 저서에서 초월 스님이 일제의 규금으로 고문을 받고 나와 몸을 추스르고 독립운동을 준비한 곳으로 진관사를 주목한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독립운동과 진관사 학술세미나에서 '임시정부의 불교 중앙 연락부가 진관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며 태극기를 그리고 자료를 감싸 비장했던 백초월 스님에 대한 공적은 100여 년이 지난 현재로서 인정돼 빛을 발하고 있다. 진관사는 이를 통해 사찰음식·수록재 중심도량에서 항일운동 거점 사찰로의 명예를 안게 됐다.

진관사는 발견 후 관련 2차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2011년 백초월 스님 태극기 비석을 제막하기도 했다. '잊혀지고 있는 독립운동가 스님들을 발굴·연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화두를 진관사의 태극기와 백초월 스님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 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